

매일경제

EASY GUIDE FOR CITYLIFE

Citylife

- 발행사 매일경제신문사
- 창간일 2005년 10월 20일
- 발행일 매주 월요일
- 부수 3만부
- 총면수 68면
- 용지 표지 100g 아트 (Hi 알파)
본문 60g e-Plus
- 규격 205mm×280mm





CONCEPT

Easy Guide For Citylife

3040 트렌드세터를 위한 어반 라이프스타일 주간지

Citylife는 도시인을 위한 온-오프라인 라이프스타일 주간지입니다. '도시생활을 위한 모든 것'을 캐치 프레이즈로 이슈, 문화, 여행, F&B에 이르기까지 3040 트렌드세터를 위한 라이프스타일을 소개합니다. 주요 포털(네이버, 다음) 및 서울시내 주요 오피스빌딩과 매일경제 40개 지국, 특급호텔 라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M B N

FOCUS TV

MBN



주말 미니시리즈 '세자가 사라졌다'
예비 세자빈에게
'보쌈'당한 세자

• Contents 제공 MBN

13일 처음 방송된 MBN 새 주말 미니시리즈 '세자가 사라졌다'는 세자빈이 될 여진(홍예지)에게 세자(수호)가 보일 때마다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조선판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이다. 연기자로 변신한 그룹 엑소(EXO)의 리더 수호와, 배우 홍예지의 만남으로 방송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줄임도 높은 사사와 입체적인 캐릭터들로 MBN '보쌈-운명'을 품었다(2021)의 흥행을 이룬 김지수-박달 작가가 다시 손을 잡은 스펀트 프로 작품. '윙크리얼', '열아홉 이하'로 흥행에 성공한 연우민 감독이 감독이 합세해 기대를 모은다.

드라마 '세자가 사라졌다', 극의 배경 스토리

예비 세자빈으로 간택된 '세자빈'은(홍예지)는 정명에게 남편을 잡아먹을 사주를 타고났다는 죄를 받는다. 이에 최명운의 아버지인 여의 '최상목'(김주현)은 딸의 사주를 바꾸기 위해 보쌈을 감행한다. 그러나 계획이 뒤를러며 세자가 보쌈을 당하고, 이들은 연당을 발라 뒤집은 '세자 실종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얽히고설킨 운명의 실다리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세자가 사라졌다'는 '어우야담(조선 광해군 때 어우당 유봉면이 지은 한국 최초의 야담집)에 등장하는 남자 보쌈 일화를 모티브로 기획됐다. 남자 보쌈의 목적은 '처녀의 백운을 막는 데' 있었다. 딸이 과부가 될 뻔하자라는 죄를 받은 처녀들의 부모가 낯선 총각을 보쌈해 모의 결혼을 시킴으로써, 미래의 진짜 사위가 받게 될 백운을 낯선 총각에게 떠넘겼다는 것. 드라마에서는 조선의 세자가 보쌈을 당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주역 5인방 인물 소개&인물 관계도

이연(수호) 이연은 아버지 해종이 반정으로 보위에 오르면서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그런 이연을 탐탁지 않아 하는 세력은 포루라를 잡기 바쁘지만, 외유내강인 그는 항상 웃어넘긴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 안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이것은 자신이 딸인 사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꾀 발로 쫓음을 나갔다가 보쌈을 당하고 만다.

최명운(홍예지) 여의 최상목의 딸. 세자빈으로 내정된 그녀는 아버지 앞에서는 장한 규수지만, 사실 누구보다 정파와 외리가 넘치는 반전 매력의 캐릭터이다. 어려서부터 무술과 의술을 두루 배워 아버지와 함께 가난한 민초들을 돌보고 있다. 세자 실종 사건을 겪으며 순종적인 태도를 벗어 던지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주체적인 인물로 그려낼 예정이다.

대비 민수현(홍세민) 궁궐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 민수현은 본래 타고난 성정은 장하고 유쾌하지만, 사당하는 사람을 지극히 위해 받아들이면서 독하고 보잘것 없게 변해간다. '보쌈-운명'을 품었다'에 출연했던 명세민이 김지수×박달 작가들과 다시 한번 손을 잡는다.

최상목(김주현) 최명운의 아버지. 왕실의 신뢰를 받고 있는 내리원의 경(正)이자 여의이다. 반정 공신이었어도 어떠한 권력도 탐하지 않는 윤공은 청정으로 덕이 알려져 있다. 막강 높은 어파이지만, 세자 실종 사건으로 인해 쌓아온 것들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자 자신의 말을 거르려는 것을 그냥 두지 않는 냉정한 면모를 보여준다.

도상(김민준) 세자 이연의 이복동생이자 해종의 두 번째 부인인 중전 윤씨의 아들이다. 도상대군은 이복 형 이연을 누구보다 따르며 믿고 의지하지만, 형이 실종되어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맞닥뜨리고 갈등을 겪는다.



INTERVIEW+CULTURE



천 원짜리 영화에서 만난 구씨 아저씨

4만 돌파, 연장상영 '밤나시' 제작자 손석구 인터뷰

• Word '박업은 구씨'
• Photo 박스채널, 박연필름(이시안하)

12분 59초짜리 단편 '밤나시'가 개봉 18일 만인 지난 1월 4주차 연장 상영이 결정됐다. 배우 손석구가 출연한 아나라 직접 설립한 제작사에서 제작자로서 처음 선보인 영화다. 단편으로선 이례적으로 극장 개봉을 한 데다, 평면한 디큐멘터리 영화도 1만 명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적 관객 4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1,000명에 보는 10분짜리 단편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연출을 그에게 물었다.

Q. '밤나시' 출연 계기가 궁금하다.

현(디지탈)차 쪽에서 지동자의 시선으로 세롭고 혁신적인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연출 제언이 왔고, 콘텐츠 제작 방식은 어떤 포맷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해 나에게 가장 친숙한 매체인 '영화'를 떠올렸다. 연기, 제작, 연출 모두 다 도맡아보다 배우와 제작으로 참여하고 감독은 직접 심의를 해 보고 싶어 오면 동료이자 친구였던 문병근 감독을 제언했다. 장편을 함께 준비 중이어서 손발을 맞춰볼 좋은 기회였다. 기존의 브랜딩 캠페인(이시안하)과도 느낌이 같아, 어떻게 하면 독실적인 콘텐츠로 만들까가 가장 고민이었고, 과연 현(디지탈)차가 우리가 구상하는 콘텐츠를 이해해 줄까 반신반의했는데,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서 나만큼이나 새로운 것에 욕망이 하고, 아티스트에 대한 존중도 높다는 생각을 했다. 단편이라는 형식, 지동차 콘텐츠를 영화로 찍는 것도 신선하다는 입장이었다. 현(디지탈)차가 기력과 투자를, 우리가 제작과 연출을 한 셈이다. 굉장히 세디스가 좋고 즐거운 시도였다.

Q. 공간이나 설정이 기존 한국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인다. 어떻게 구상했나?

영화의 설정은 전적으로 문병근 감독의 아이디어다. 지동차 내장 카메라로 찍었지만 단순한 광고물이 아닌 영화라는 점을 고려해 촬영 기법에도 신경 썼다. 경찰들이 현장이나 직권을 수행할 때 쓰는 보디캠 느낌을 활용하면, 지동차 카메라의 존재 이유가 명확적으로 더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다. 12분 59초의 영상이지만, 에디션과 발간된 일어난 또는 잊혀진 풋지(footage, 시간 자료 화면) 같은 콘셉트를 가져와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카메라도 7개나 사물을 해라 되서, 편집이 들어간 보디캠 풋지(footage)의 느낌으로 구현하기 위해 문병근 감독을 찾았다. 단편 영화다 보니, 민세티나 클로징 개념이 없기에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콘셉트이기도 했다.

"경찰 보디캠 영상에서 미디어에 떠돌던"
"또 다른 스낵무비 나왔서 다들 극장 즐겨 찾았으면"

Q. 선댄스 영화제 워크숍에서 해외 관계자들에게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 그걸 분위기로 알아 달라.

선댄스 영화제 특성상 그럴 줄기는 분들이 많아도 했지만, 할리우드 관계자들과 셀럽이 많이 참석해 '밤나시'에 대한 피드백을 줬다. 질문도 많이 해주고 그들 역시 이 작품 같은 포맷에 참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영노의 활동 '시리즈'에도 출연한 세계적인 카메라맨 역사의 대가인 생강 배우는 "영화가 곧세 끝나고, 자동차를 활용해서 이런 역산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신선하고 멋지다"라고 했다. 너무나 감명받았고 아직도 잊지 못할 순간이다.

Q. 극장에서 1,000원에 보는 스낵 무비라는 콘셉트가 신선하다. 단상 배경이 궁금하다.

내가 직접 제작과 함께 롤보(디지탈)차의 회의를 하면서 끝까지 고민하고 요구했던 것이 우리 콘텐츠가 관계자에게 단편에 직관적으로 가 닿을 수 있는 단상이었다. 오랜 고심 끝에 '스낵무비'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런 우리가 배웠던 단상 영화와 다르게, 1,000원만 내고 극장에서 손쉽게 보고, 그저 상업적 가치를 지닌 스낵 콘텐츠 영화라는 점이 '스낵무비'와 필요하게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문학적이고 작가적인 주제가 많이 들어가는 영화와는 다르게 시간은 짧지만 대중 친화적인, 상업 영화로서의 기능을 하는 스낵 영화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 아닐까? 처음부터 그런 기획한 건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첫 번째 시작점이 된 것 같다. 그것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는 제이 이미 거뒀다고 생각한다. 10분짜리 영화를 극장에서 1,000원에 보는 것 자체가 영화계에 활력이 되고, 스낵 영화가 극장 상영을 할 수 있는 도전 과제를 이룬 것 자체가 큰 성과 아닐까.



FOOD & RESTAURANT

FIND DINING

고마움을 표현하는 한 끼

'밥'으로 정을 나누는 참맛

· Word Photo: 최유진

'예쁘시는데, 식사 한번 같이해요' 흔한 인사말이지만, 또 이 말처럼 고맙고 기운 나는 게 있을까? '밥정'에 전심한 우리들이, 이 복권에 올랐을 말을 담아 대접하고 싶은 식당을 찾아서.

남서울민물장어

#남서울민물장어 #39만원(물장어)



북치 서울 강남구 배운사로 137 남서울민물 1층
운영 시간 12:00~21:30

1985년부터 시작된 남서울민물장은 수십 년 단골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3대가 함께 오는 밑고 먹는 장어 집이다. 국내산 민물장어 중 맛이 좋다는 200g 전후 오미 장어만을 내놓는데 부드럽고 촉촉함이 일품이다. 장어를 굽는 동안, 장어뼈 튀김으로 입맛을 살려보자. 찹조림하고 오도복한 식감이 좋아 손이 간다. 장어뼈를 5~6시간 푹 끓여 매주를 넣은 장어국이 나오는데 이젠 별미다. 주문 시, 장어국이 참 맛을 느낄 수 있는 소금구이(4만 9,000원)를 먼저 주문한 후, 특제 소스로 맛을 낸 전장구이(4만 9,000원)와 고추장구이(4만 9,000원)를 추가해 이 식당의 맛을 모두 음미해 보길 권한다. 물까지 무료다.

64

간자청담불루

#간자청담불루 #25만원(통물식당)



북치 서울 강남구 영남동 3층
운영 시간 11:30~22:00

25년 형상으로 청담동에서 입소문 난 '간자청담'이 압구정동으로 이전하여 프리미엄 오마카세(알감자밥)로 오른 한 곳이다. 청담스퀘어 3층 전관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프라이빗 룸으로 공간 자체 만으로도 대접받는 등 고급스러워 가족 모임, 상견례 등 소규모 행사에 좋다. 매생이 죽, 차관우리로 시작해 해초와 야채가 곁들여진 맑아, 참돔, 참치, 농어 등 계절 회와 구이, 튀김 조합과 술법으로 마무리되는 코스는 알차다. 런치코스 4~5만 원대부터 불루 사시미 스테일 13만 원까지 다양하게 운영된다.



사리원도국정

#사리원도국정 #서울서대문로(불고기)



북치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72
운영 시간 11:30~21:00

3대째 불고기 전문식당 사리원. 황해도가 고향인 장어나 기 담노를 달고 있는 할아버지를 위해 과일과 야채로만 만든 특제소스가 이곳의 특징이다. 담백하고 속속한 불고기 맛은 여전하다. 먼저 피오리는 육수불고기(2만 7,000원), 육수와 함께 아물한 불고기는 고기도 맛있지만 달달한 육수에 국수를 추가해 먹는 맛, 국물 양 넘어 톰 톰 국수를 곁에 비벼 먹는 게 편이다. 사리원 불고기(3만 3,000원), 매콤한 사리원 비빔냉면(1만 4,000원), 황량해된 스테일의 물냉면(1만 4,000원)도 좋다.



TRAVEL



해발 4,200미터를 향한 마지막 여정
안나푸르나의 푸르름은
영원하리

• Word Photo 주호진(여행작가)

트레킹을 시작하고 절반이 지났다. 체력이 고갈될 것이라 예초 예상과 달리 몸과 마음에서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졌다. 체력적 한계는 없었다. 해발 4,200m에 달하는 오르막을 질주하는 동안 해 순간이 개인의 최초 기록이자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그것에서 순간을 즐겼을 뿐 어느 데도를 잃고 싶지 않았으나, 트레킹 마지막 목적지에 닿았을 때는 일러드는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목적지 방향을 알려주는 나무 표지판



보우 캠프 신장 풍경



해 순간이 최초의 기록이자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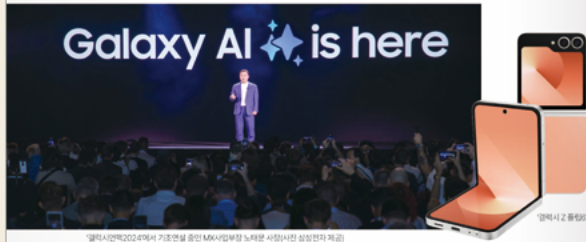
3일 차 첫 번째 목적지인 보우 캠프(Low Camp)로 향하는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됐다. 약 2.3km 거리, 2~3시간가량 오르막을 올라야 하는 코스다. 오전시간을 온통 소비하면 해발 3,000m에 위치한 보우 캠프에 닿는다. 30여 분 강악을 끝, 출발 장소인 레스트 캠프(Rest Camp)를 완전히 벗어난 자림, 정글 숲 한가운데 당당히 서 있는 나무 표지판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에 새겨진 '보우 캠프'를 보는 순간 새 날 새 아침 그리고 또다시 펼쳐질 트레킹의 새로운 경연에 상현을 감추지 못했다.



CONSUMER NEWS

IT CITY

‘갤럭시 언팩2024’&‘WWDC24’ 다시 보기
온디바이스 AI 대중화에 포커싱



‘갤럭시 언팩2024’에서 기종연설 중인 MX사업부장 노재원 사장(사진 상단)의 모습(왼쪽)



‘갤럭시 Z 폴드5’



WWDC24



WWDC24에서 Apple이 발표한 기능 시스템인 Apple Intelligence를 소개하는 모습(오른쪽)

• Word: 이승연 기자 • Photo: 삼성전자, 애플 뉴스룸

지난 6월 애플을 따크 본사에서 열린 ‘WWDC24’를 통해 애플은 본격적으로 온디바이스 AI 도입에 대한 계획을 밝히며 자체 인공지능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4’를 통해 새로운 갤럭시 Z 시리즈를 소개하며 모바일 AI 대중화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름 통한 연의 소통의 기능을 확장하다

갤럭시 Z 폴드6와 갤럭시 Z 플립6는 갤럭시 AI를 활용해 보다 자연스러운 의사 소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통역(Interpreter)’ 기능은 멀티플렉스 듀얼 스크린을 활용한 새로운 ‘대화 모드’를 통해, 사용자와 상대방이 실시간으로 번역된 텍스트를 확인 스크린과 커버 스크린으로 각각 동시에 확인하여 대화를 할 수 있다. 통화 시 실시간으로 양방향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시간 통역(Live Translate)’은 기존 ‘연락’ 앱을 넣어 카카오톡, 라인, 구글 메신저, 왓츠앱, 텔레그램 등 다양한 앱과 연동해 사용이 가능해진다.

‘삼성 노트’ 앱에서 사용자가 작성한 내용을 번역, 요약 정리해 주고, 자동으로 서식을 변환해 주는 ‘노트 어시스트(Note Assist)’는 ‘삼성 노트’ 앱의 텍스트 변환 기능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삼성 노트’ 앱에서 바로 문서를 스크린으로 변환할 수 있고, 스크린을 번역 요약할 수 있다.

‘삼성 키보드’에는 간단한 키워드만으로 메일 본문이나 SNS 게시글의 문구를 작성해 주는 ‘글쓰기(Composer)’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SNS 게시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셜 앱 내 사용자 히스토리나 대화 기록 등이 연동해 문구가 제안된다.

‘갤럭시 버즈3 프로’를 소개하는 모습(오른쪽)



‘갤럭시 버즈3 프로’를 소개하는 모습(오른쪽)



‘갤럭시 Z 폴드5 2024 AI를 활용한 모습(오른쪽)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2024
Galaxy Unpacked 2024 개최

1. 폴더블과 AI의 만남

삼성전자는 지난 7월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4(Galaxy Unpacked 2024)’ 행사에서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6와 갤럭시 Z 플립6를 전격 공개했다. 노재원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은 ‘삼성 갤럭시 언팩 2024’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약 2억 대의 갤럭시 모바일 기기에 온디바이스 AI(인공지능)를 탑재할 것이라고 기가 자체에 탑재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종 ‘갤럭시 AI’를 탑재하겠다고 밝히며, 모바일 AI 대중화를 가속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언팩 행사에서는 갤럭시 Z 시리즈(갤럭시 Z 폴드6, 갤럭시 Z 플립6) 신제품 소개와 함께, 웨어러블 제품(갤럭시 워치, 갤럭시 워치2, 갤럭시 워치 울트라, 갤럭시 버즈3 프로) 등도 새롭게 공개했다. 폴딩과 관련된 삼성의 디스플레이 기술과 만나 보다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 관리 분야에서 사용자가 스스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삼성의 기능을 더욱 강화한 것도 주목해볼 부분이다.

갤럭시 Z 폴드6와 갤럭시 Z 플립6에는 최신 ‘구글 제미니(Gemini)’ 앱이 탑재됐다. 사용자가 화면 하단의 모서리를 눌러 불러가거나 ‘hey 구글(hey Google)’이라고 말하면, ‘제미니’의 오버레이(Gemini overlay)가 실행돼 정보 습득, 글쓰기, 계획 세우기 등을 돕는다.

올해 초 ‘갤럭시 AI’를 통해 본격적인 모바일 AI 기능을 선보인 삼성전자는, 이번에는 갤럭시 Z 폴드6와 갤럭시 Z 플립6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넓혀나가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MX사업부장 노재원 사장은 “삼성전자는 2019년 처음 폴더블 제품을 출시한 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폴더블 시장을 선도해왔다”며, “한층 더 발전한 갤럭시 AI와 최적화된 폴더블 폰을”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7월 24일부터 갤럭시 Z 폴드6, 갤럭시 Z 플립6, 갤럭시 버즈3 시리즈를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에 순차 출시한다.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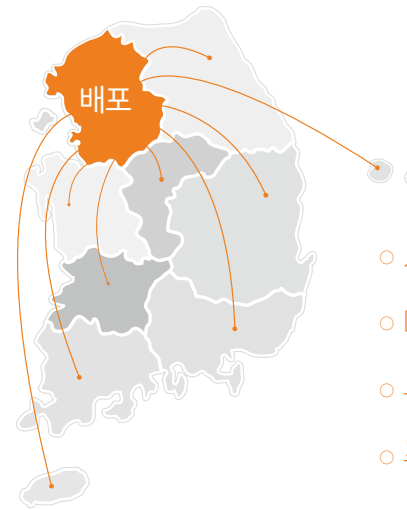
‘갤럭시 Z 폴드6’



TARGET & DISTRIBUTION

타깃독자

- 경제력을 갖춘 수도권 30~40대



- 서울시내 주요 오피스 빌딩
- 매일경제 신문 구독자
- 본지 서울 40여 개 지국
- 주요 백화점 및 특급 호텔 30여 곳

◦ 주요 배포 빌딩

GS강남빌딩 삼성전자빌딩 서초타워 강남파이낸스센터 현대자동차 아셈타워 무역센터 두산빌딩
 글라스타워 포스코센터 코스모타워 JS타워 도심공항타워 INGE타워 SK리더스뷰 포스틸타워 3M타워
 랜드마크타워 갤러리아빌딩 다보빌딩 삼성물산빌딩 KCC빌딩 중소기업회관 LG트윈타워 63빌딩
 미원빌딩 LS용산타워 동원빌딩 관훈빌딩 상공회의소 광고빌딩 국제빌딩 에이스타워 SK타워
 배재정동빌딩 유니온빌딩 한신인터밸리 한솔빌딩 한화빌딩 삼풍빌딩 광희빌딩 현대빌딩 쌍용빌딩
 프라임빌딩 구산타워 대청타워 내외빌딩 극동빌딩 중소기업회관 대림빌딩 명동센트럴빌딩 용산빌딩
 스타타워 J타워 노블레스빌딩 신영빌딩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전문건설공제회관 DMC첨단산업센터 등
 서울시내 800여개 빌딩 및 오피스텔

ADVERTISING

매경닷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을 통한 광범위한 노출

- 표지 및 화보 컷 매일경제신문 하단 광고 노출(주 3회 이상)
- 매경닷컴(네이버, 다음 포털로 전송) 통해 온라인 기사 릴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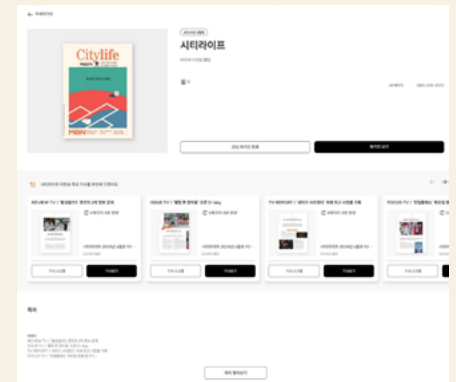
매일경제 기사 홈페이지



네이버 포털 뉴스



다음 시티라이프 채널



모아진 웹진으로 보는 시티라이프

광고 단가표

구분	광고단가	규격
표지 4	5,000,000	205mm × 280mm
표지 3	3,000,000	205mm × 280mm
표지 2	3,500,000	205mm × 280mm
표지 2 대면	3,000,000	205mm × 280mm
목차 대면	2,000,000	205mm × 280mm
내지	1,500,000	205mm × 280mm

※ 상기 광고 요금은 부가세 (광고단가의 10%) 별도입니다.

◦ 광고 문의처

이성홍 부국장	010-5239-0082	02)2000-2540
권성호 차장	010-3273-9677	02)2000-2543
김진우 대리	010-9173-1580	02)2000-2541